

첨단 이동수단 경쟁력,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

- 특허청·현대자동차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(6.29)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6월 29일(목) 14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(경기도 화성시)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.

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(모빌리티)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·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·친환경차·도심항공교통(UAM)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,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.

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·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,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.

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 “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·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확인하여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 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, 올해는 전기·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균 (042-481-5168)
		담당자	사무관	강희만 (042-481-5429)